

中, 내달초 수석대표 회동 제안 靑 “6자회담 논의할 때 아니다”

李대통령 오늘 특별담화

중국이 다음달 초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간 긴급 협의를 제안했다.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28일 베이징(北京) 외교부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우 특별대표는 “중국은 타당한 방법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9-19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연구를 거쳐 12월 상순에 베이징에서 북핵 6자회담 단장(수석대표) 긴급협

상을 해 현재 각측의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우 특별대표는 이어 “6자회담은 각측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조기에 6자회담

을 재개하자는 게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이런 제안은 북한의 우려를 농축 위협과 연평도 포격사건, 그에 이은 서해에서의 함모 함가 함미합동 군사훈련 등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북핵 6

자회담 조기 재개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 정치작업 차원에서 대화의 자리를 갖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일련의 도발에 대해 북한의 사과와 분명한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북핵 6자회담의 재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는 대통령과 다이빙귀(戴秉國) 중국 국무위원과의 면담에서 6자 회담 재개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임동욱기자 tuim@연남뉴스

134만 對 204만

2030년 전남 인구 전망, 누가 맞나

전남도와 정부가 내놓은 전남 인구 전망치가 크게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 시대 흐름을 뒤쫓아가지 못하는 통계 자료에 의존적인 해석까지 곁들여진 탓이다. 전남발전연구원(이하 전남연)은 최근 ‘전남 인구증대 및 경제활동인력 확충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 5차 전남 발전 미래전략포럼’을 갖고 2030년 전남 인구가 204만1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2020년 전남도 인구 200만 회복’을 기치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는 2007년 5월 작성한 것이다. 5년 전 자료라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 흐름을 뒤쫓아가는 게 쉽지 않다. ‘2010년 전국 인구 4887만 5000명, 전남 인구 174만명’으로 추정된 당시 통계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047만5351명으로 5000만명을 넘어섰고 전남 인구는 191만8601명이라는 점에서 실제 인구와 ‘통계’ 사이에 ‘과리’가 크다. 전남발전연구원(이하 전남연)도 비슷하다. 전남연의 인구 전망은 크게 ▲높은 합계출산율 ▲인구유입을 위한 대형프로젝트 등을 근거로 했다. 예컨대 지난해 기준 가입여성 1명당 전남의 합계출산율이 1.445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고 지난 한해 2300개의 기업을 유치해 8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점 등을 통계에 반영했다. 무안 기업도시, 혁신도시, 광양 경제자유구역과 2012여수세계박람회 등 대형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전제로 85만2000명의 인구 유입 효과도 감안했다. <2면으로 계속> /김지을기자 dok2000@

통계청-전남연 전망 70만명 차이

“부실 통계·뺑뺑이...정책 혼선 초래”

로 내건 만큼 이 통계만 보면 전남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한 셈이다. 반면, 통계청의 인구 통계와 비교하면 ‘극과 극’이다. 통계청은 ‘2000~2030년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2030년 전남의 인구를 134만7000명으로 추정했다. 통계작성 기간이나 방법 등 통계기법의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두 기관의 인구 전망 수치가 무려 70만명이나 나는 셈이다. ‘부실 통계’, ‘인구 뺑뺑이’ 논란도 불거질 수밖에 없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

알림

새롭다, 즐겁다, 뉴질랜드 어학연수

12월4일 오전 10시 설명회...광주일보 16층 회의실



뉴질랜드 정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현지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는 정통 영어 어학연수에 글로벌시대의 꿈나무들을 초대합니다. 광주일보는 뉴질랜드 어학연수 전문기관인 뉴질랜드교육문화원(NZLES: New Zealand Life Education Service, www.nzles.com)과 공동으로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1년 2월 4주간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실시합니다. 이번 어학연수는 기존 ‘해외과외형’ 연수가 아닌, 새학기를 시작하는 뉴질랜드 학생들과 현지 학교 교실에서 매일 정규수업을 받으면서 체계적인 영어실력을 키우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또 현지 학생들의 집에서 매일 숙식하는 홈 스테이를 통해 영어권 문화를 체험하면서 실용영어를 동시에 익힐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특히 홈스테이 담당자와 비상연락망을 갖춘 24시간 연수생 보호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어느 연수프로그램 보다 안전하게 운영됩니다.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최: 광주일보사
- 주관: NZLES·AK WORLDLINE
- 연수기간: 2011년 1월30일~2월26일
- 신청마감: 12월 10일
- 문의: (062) 220-0641

光州日報社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8일부터 서해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시작했다. 다음달 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항공기의 실무포 포격과 해상사격 등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7월 동해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에서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9만7000t급)와 함미함정들이 기동하고 있는 모습. /연남뉴스

한미연합훈련 돌입...서해 긴장 고조

연평도 전사 해병대원 2명 영결식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하는 한미연합훈련이 28일 오전 6시 서해상에서 시작된 가운데 북한의 포격도발 징후가 일시 포착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이날 오전 북한의 추가 포격도발 징후를 포착한 군 당국이 주민 긴급 대피령을 내린 연평도에는 그 어느 때 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8일 “나

흘간 진행되는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야간훈련을 포함해 24시간 고강도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훈련이 시작된 가운데 이날 오전 11시20분께 북한의 방사포 발사 징후가 포착돼 군 당국이 연평도 주민과 취재진, 재해복구인력 등에 긴급 대피령을 내렸다가 11시57분께 해제했다. 이번 훈련에는 미측의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9만7000t급)와 고성능 지상감시 정찰기인 ‘조

인트 스타즈’(E-8C), 한국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7600t급) 등이 참가했다. 한편,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한 해병대 연평부대 서정우(22) 하사와 문광욱(20) 일병의 합동영결식이 27일 오전 10시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체육관에서 해병대 현역과 예비역, 국무총리와 여야 정당대표, 미8군사령관, 각 군 장성 등 1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병대 최고 예우인 해병대장으로 엄수됐다. /최권일기자 cki@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광신대학교
 학부 정시 모집 12월 17일~22일
 대교원사접수 12월 1일~17일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www.kgrc.ac.kr
수시2차 신입생모집
 2010. 11. 04~12. 02
 고구려대학 입학문의 030-7323-5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연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특별한 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화순 이리스파크**
 창을 열면 청정 수목원, 문을 나서면 민연산 푸른빛 환경이 빛나는 **푸른숲 전원주택을 만나보십시오.**

1단지

2단지

賢晶産業開發(株) | TEL 062-385-1013·1014
 HYUNJOUNG INDUSTRIAL DEVELOPMENT INC